第五十四號 (第三種郵便物認可) 4288,10,13

東大時報

編輯人 白性都
印刷人 金鎭福
發行人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 ② 1685·1686
(週刊) (四十五號)
檀紀4289年10月17日 發行
(圖書 第五十部 一)

蹴球·卓球·堂堂優勝

第37回 全國體育大會에서

◇…敎育週間의 盛大한 幕을 지난三日 서울운동장 第三十七回 全國體育大會는 鄕土의 榮譽를 爲하여 氣魄도 드높은 五千餘 明女選手의 二十餘種目에 達하는 競技가서 울運動場을 爲始한 市內各個競技場에서 지난九日下午 五時까지 展開되었다 同大會는 白熱裡에 閉幕되었다 ◇…敎育週間의 終日 盛況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全國各地에서는 第四回 敎育週間의 行事로서 많은 成績을 보았다 ◇…敎育週間의 始作 이번의 敎育週間이 始作 當初에 다음과같은 期待를 품었던것이다 今年의 敎育週間의 標語는 『어떻게하면 더좋은 學校를만들수 있을가』하는 昨年의 그것을 그대로 採擇하였거니와 『더 좋은 學校』를만든다는것은 『더좋은敎育』을 施行해야 한다는 意味였으며 또나아가서는 『더좋은 나』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偉大한 意義와 具體的으로 할한다면 첫째로 宣傳 當施行되어야할 國民學校의 義務 敎育問題이었다 우리나라 憲法 第十六條에는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라고 規定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八年 아직난 오늘날에도 實施되지못하고있는 義務敎育問題는 가장 重大한 問題로 硏究되어야할것이라고 본다 敎育精神을 敎育目的을 敎育課程을 敎育內容을 敎育方法을 敎育環境을 敎育行政을 敎育財政을 敎育人事를 敎育行政을 敎育財政을 敎育人事를 敎育行政을 敎育財政을 敎育人事를

三六

한손에 막대잡고 또 한손에 가시쥐고 늙는 길 가시로막고 오는白髮 막대로치랫더니 白髮이 제먼저알고 즈름길로오더라

(禹傳)

荊棘叢叢兩手持
老來之路欲防之
生憎白髮無時出
卻略分明與自知

三七

白日은 西山에지고 黃河는 東海로든다 古來英雄들은 北邙山으로드단말가 두어라 物有盛衰니 恨할줄이있으랴

(崔神)

西傾白日依山盡
東倒黃河入海流
從古英雄歸地下
盛衰消長恨悠悠

三八

梨花에 月白하고銀漢이 三更인제 一枝春心을 子規야 알랴마는 多情도 病인냥하여 잠못이뤄하노라 (李兆年)

月白梨花銀漢隔
春心惱煩子規聲
多情自是無何症
無心自是彼雪形

時調談叢 (四)

退耕 權相老

尊顯深更暇不成
三九
구름이 無心한말이아
다도 虛浪하다 中天에
떠있어 任意로 다니면서
구태여 光明한날빛
을 덮어무삼하리오

(李在吾)

夕陽에 지새는손이 눈을겨워하노라

(元天錫)

興亡有數半千年
滿月臺空秋草芳
王業如今當牧笛
斜陽歸客淚沾巾

四一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아 牧笛에 부쳐오니

(李穡)

白雪이 자자진골에 구름이 머흘매라 梅花는 어는골에 피었난고 夕陽에 홀로서서 갈곳을몰라하노라

(李穡)

白雪滿壑雪盈堆
有信梅花何處開
消息茫然無處問
斜陽佇立獨徘徊

四二

이몸이 죽고죽어 一百番 그저죽어 白骨이 塵土되여 넉시야 있고없고 일향한 一片丹心이야가실줄이있으랴

(鄭夢周)

此身死死百番死
白骨成塵魂魄有無
一片丹心只向主
豈將身死可心變

文化의意義에對한反省 (上)

曹佐鎬

(一)

事實 오늘날처럼 『文化』란말이 濫用되고 曖昧하게 쓰이고있는 時代는 없을것이다 文化란말이 本來 무엇을意味하며 어떤狀態를가르키는가를 反省해봄도 決코 無意味한일이아닐것이다。

普通 우리들이 쓰고있는 文化란말은英·佛語의 Culture 獨語의 Kulture의 번역語임은 勿論인데 이것은 『耕作한다』 『加工한다』를意味하는 라틴語의 動詞 Colo에서 나온것이라한다。

그러면 『耕作』한다 『加工한다』하는것은 어떤 意義를 가지는것일까?

人間도 다른生物과다찬가지로 自然環境속에 살면서 自然의 制約과 束縛을 받으면서 生活하고있다 즉人間도 다른生物과같이 肉體를갖고 있기때문에 自然의 制約에서 벗어날수없고 自然을 支配하는 法則을 無視하고서는 生存할수 없다 이러한 自然의 制約과 束縛은原始時代로 올수록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 귀각는것이다。

그런데 人間은 이러한 自然環境속에 살면서 여러가지 經驗을얻게 되었고 이 經驗을 가르키는가를 反省시켜 知能과 理性을 發達시켜 決코 無意味한일이아닐것이다。

性에 의하여 이런에는 있는 文化란말은英·佛語의 Culture 獨語의 Kulture의 번역語임은 勿論인데 이것은 『耕作한다』 『加工한다』를意味하는 라틴語의 動詞 Colo에서 나온것이라한다。

그러면 『耕作』한다 『加工한다』하는것은 어떤 意義를 가지는것일까?

人間도 다른生物과다찬가지로 自然環境속에 살면서 自然의 制約과 束縛을 받으면서 生活하고있다 즉人間도 다른生物과같이 肉體를갖고 있기때문에 自然의 制約에서 벗어날수없고 自然을 支配하는 法則을 無視하고서는 生存할수 없다 이러한 自然의 制約과 束縛은原始時代로 올수록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 귀각는것이다。

그런데 人間은 이러한 自然環境속에 살면서 여러가지 經驗을얻게 되었고 이 經驗을 가르키는가를 反省시켜 知能과 理性을 發達시켜 決코 無意味한일이아닐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自然克服의 第一步는 道具를製作 使用하는것이다 이것은 人類만 가진 技術과 더불어 始作되었다 이것은 人類만 가진 技術과 더불어 始作되었다 이것은 人類만 가진 技術과 더불어 始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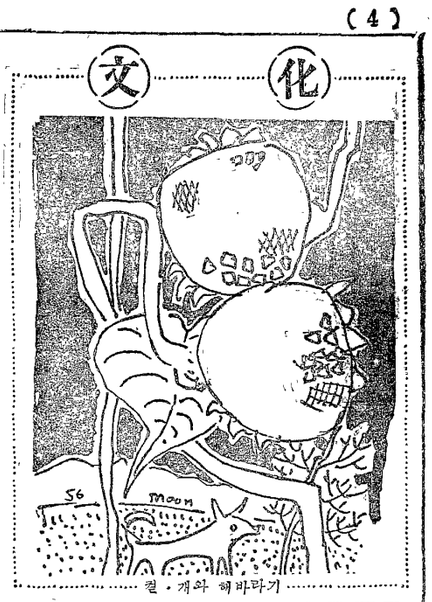
愚齋 杜詩諺解 ②

李丙疇

元來 解詩란 無識한 者의 미련의 所致다 이러구러 멋겨워 吟詠은 줄기리 詩는 삼가는 것이 體다 況 杜詩에서랴。

서울의 字句의 註解만을 일삼다가는 『수박 겉 핥기』의 愚를 免치 못할 것이고 그 렇다고 詩說을 爲主하다가는 一方的이어서 멋적다 게다가 初心者로 보아서는 『걸지로 못하고 뛰는 格』이고 저래 이래 저래 이리 저래 이리 저래 이리

文化



컬 · 개와 해바라기

『曼碩舞劇과 人形劇의 關係』

張漢基

曼碩舞劇은 우리나라에서 固有한 最古의 人形劇으로서 이는 全科程을 通하야 이는 佛敎가 한 對話도 하지않는 말하자면 一種無言劇이었다。

勿論 그 發生에 關하여는 燃燈神話와도 어떤關係가 있는것같이 보이지마는 아직도 學界에 이렇다할 起源을 말하기 어려움으로 짓날로 미루려하지마는 어떻게 『雪窮』이라는 이劇을 『燃燈佛노리』라고도하나 『曼碩』이라는 말은 文字意 그대로 보아서 『길고 넓을 만』 『클서』이것은 兩字로두 巨大한 뜻을지니고 있으며 『僧』은 『중』을 意味하는까닭에 『큰중노리』라는 뜻으로 解釋되기도한다。

그리고 『燃燈佛』이란 뜻은 提和衛國(Dipavatt)의 太子인 錠光太子가 成道하여 부처가 된뒤에 그의 誕生故事를 좇아서 그를 燃燈佛이라고 하였다하니 太子錠光을 記念하기 爲해서 생긴이름인지 그는 이劇을 演出할때에는 法燈을 밝히었고 나중 民間人의 손에 넘어와서도 이를 演出할때에는 數많은 燃燈을 달고 漫碩이란 巨大한 人形을 操縱했으니 그래서 『燃燈노리』 『燃燈佛노리』라고불러 왔든것이다。

그러므로 이劇은 처음 佛敎의 儀式을 가지고 있는것이라고 할수있으며 『僧』은 『중』이라고도하나 『曼碩』이라는 말은 文字意 그대로 보아서 『길고 넓을 만』 『클서』이것은 兩字로두 巨大한 뜻을지니고 있으며 『僧』은 『중』을 意味하는까닭에 『큰중노리』라는 뜻으로 解釋되기도한다。

그리고 『燃燈佛』이란 뜻은 提和衛國(Dipavatt)의 太子인 錠光太子가 成道하여 부처가 된뒤에 그의 誕生故事를 좇아서 그를 燃燈佛이라고 하였다하니 太子錠光을 記念하기 爲해서 생긴이름인지 그는 이劇을 演出할때에는 法燈을 밝히었고 나중 民間人의 손에 넘어와서도 이를 演出할때에는 數많은 燃燈을 달고 漫碩이란 巨大한 人形을 操縱했으니 그래서 『燃燈노리』 『燃燈佛노리』라고불러 왔든것이다。

그리고 『燃燈佛』이란 뜻은 提和衛國(Dipavatt)의 太子인 錠光太子가 成道하여 부처가 된뒤에 그의 誕生故事를 좇아서 그를 燃燈佛이라고 하였다하니 太子錠光을 記念하기 爲해서 생긴이름인지 그는 이劇을